

社說

집단 정착지 해결 기대

승진후련장 확장과 관련, 이곳에서 수십년 거주해 온 화전민들은 군부대로부터 철거봉보를 받은 이후 받잡을 이루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동면 정암3리 주민 23가구 70여명은 6.25동란 이후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의 고통에도 이렇다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집초처럼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자식을 낳아 가 르치고 시집장가 내보기 위해 뼈빠지게 일했지만 남은 것은 나이들어 약해진 육신과 질병 그리고 빚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부대에서 사격장으로 활용할테니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만 말만 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들 화전민들이 주거하는 주택의 부지는 국방부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해 봐야 4-50년 된 허름한 주택 보상 및 이주비용이 전부다. 또 이들은 배추와 무를 재배해 판매하면서 살아왔지만 농사가 실패하거나 혹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질 시기에선 금융권에서 용자를 받았다.

아울러 이들이 받을 보상금을 금융권에서 압류할 경우 영락없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승진후련장 인근 지역은 6.25 동란 이전에는 북한지역으로 일종의 주인없는 땅이었다. 미군 이 사격장 후련장으로 사용하다가 한국군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격장은 김발법에 따라 국방부 부지로 편입했

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느 한 개인이 시효 취득했고 98년에 국방부가 매입했다.

군부대 측의 설명에도 타당성이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군인들의 훈련은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승진후련장은 그동안 효율적인 사격 훈련을 위해 그동안 중기계획으로 확장을 추진해 왔다는 게 군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각종 보상법규에 의해 가능한 한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군부대 관계자의 말에도 수긍이 간다. 군부대 측도 보상법규에 의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자, 철거 대상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 또한 아니다. 그저 철거대상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합법적 살아왔지만 이들 또한 포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착지에 대해 군부대와 포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논의하고 있는 집단 정착촌 역시 경기도유리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 적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군부대와 포천시 그리고 경기도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郷土원로초대석 ⑭ …… 前 加山農業協同組合長 李鎔本



이용본 전 가산농업협동조합장

1974년6월부터 1984년까지 가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한 李鎔本(75.사진)은 리동조합장으로 시작하여 가산조합장으로 취임, 내촌농협까지 합병하는데 큰 역할을 한 가산농업협동조합 역사의 산 증인이다.

당시에는 조합장 수당이 4천원 정도에 불과하여 빚을 지기도 했다. 이 용은 마산

가산농업협동조합 토대구축위해 最善

‘義理’를 지키며 사는 사회 절실하다

리 조합장으로서 가산면 8개리 조합을 합병하여 화산농협조합장으로 지난 1974년에 취임한다. 이후 내촌농협까지 병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날 가산농업협동조합의 토대를 구축한 이 용에게 농협은 남다른게 다가온다고 한다.

‘조합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산농협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회고한다. 처음에는 출자가 많아 조합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조합원 1인당 10가마씩을 출자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이 점차 안정되었다고 한다.

가산초등학교 11회 졸업생인 이 용은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고 재향군인회 가산면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약 20대에 가산면 마전리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았을 이 용은 ‘眞直’을 가훈으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예의와 도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태도는 지

켜져야 하며 도덕을 버리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자책하기도 한다.

또 이 용은 젊은 아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안타깝다고 한다. 특히 월급 70-80만원 받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서울 종로에 있는 보령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비닐봉지를 구입하라고 한다. 약국 주인도 팔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공짜로 주게 되면 사진을 찍어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길거리의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숨어서 사진촬영하는 파파라치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정착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좀더 정착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義理’를 잊고 사는 사회가 보기에 안타깝다.

이 용은 가산면 우금리 저수지에 대해서 할말이 있다. 농지개발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된 저수지에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그들 마음대로 저수지

를 운영함으로써 저수지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대로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이 저수지를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용의 생각이다.

이 용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 가장 보람 있게 생각되는 것은 가산농업협동조합을 일궈낸 일 이라고 한다. 내촌조합을 합병할 당시 내촌자산이 1천100만원이었는데 부채가 980만원일 때 흡수 합병하여 정상화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좀더 노력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이 용은 과거 정부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부실하여 실패한 결과 농가부채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와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도 펼쳐야 할 것을 강조한다.

최근 가산면에 소재한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마련
본지 포천병원 포천로타리 클럽 공동 주최

제3회 외국인 가족 한마당 위안잔치가 오는 16일 천주교 춘천교구 송우리교회 가산공회관에서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마련된다.

3회째를 맞는 외국인 가족 한마당 위안잔치는 본지와 포천로타리 클럽, 포천병원(구 포천의료원) 공동 주최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포천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를 위해 지난 7일 포천로타리 클럽에서 2번째 준비 모임을 갖고 포천병원 포카회는 의료봉사 차원에서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신경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체력 및 검사), 약제과 등 의료진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료하게 된다.

또 포천로타리 클럽은 증식 및



지난 7일 포천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포천병원, 포천로타리 클럽, 본지 관계자들이 모여 제3회 외국인 가족 한마당 위안잔치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과일 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즐겨 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래자랑 등 여흥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한마당 위안잔치는 본지와 포천로타리 클럽, 포천병원 포카회가 포천지역 중소기업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자리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주부명예기자단 소흘읍 김명희 총무선출
지부활성화를 위한 별도 모임 갖기로 결정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 소흘읍 지부는 10일 송우리 모음식점에서 지부모임을 갖고 김명희 주부명예기자를 총무로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경순 단장은 “오늘 모임을 신문이라는 공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과는 달리 해야 한다”면서 “소흘읍 지부 모임을 갖고 김명희 주부명예기자를 총무로 선출했다.”

또 소흘읍 지부활성화를 위해 별도 모임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소흘읍 지부 총무로 선출된 김명희 주부명예기자는 “소



10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소흘읍 지부 모음식점에서 지부모임을 갖고 김명희 주부명예기자를 총무로 선출했다.

흘읍 지부활성화를 통한 주부명예기자단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흘읍 지부활성화를 위해 주부명예기자단 전체회의 모임 후 소흘읍 지부모임을 그 자리에서 별도로 가질 것과 임원회의가 있는 달에는 회의 후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이 중 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

지난 7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중회(60·사진) 회장은 대법하고 지해롭고 용기 있는 훌륭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 포천문화원 이사, 포천문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중인 이 회장은 시인이자, 지난 99년 한해문학에서 ‘말의 방’ 5권이 당선되어 문단에 시인으로 데뷔했다.

선배시인들의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 오신 것을 늘 동경하며 나도 잠재해 있는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누를 끼치지 않는 작품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포천초등학교, 포천중학교, 서울중동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럽지도자 과정을 수료해 포천유림으로도 활동중이다.

지난 81년 동대문종합상가에서 직물가



시협의회 운영에 있어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전국은 물론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을 포천시가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랙터 없어도 논을 아니 갈 수도 없으니 펜이나 삽이나 호미라도 논을 갈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업계획을 밝혔다.

매월 12일을 ‘평화의 날’로 정해 지난 9월부터 강연회를 시작했다. 먼저 위원들이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월

위원들이 먼저 평화통일 이론으로 무장해야
포천신문 논설위원회 조직해 강한 비판 필요

게를 운영하면서 상인회장을 역임했으며 중앙JC회장 보좌관, 민주화추진연구회 이사 겸 출판위원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이 회장은 지난 94년 강창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眞直’을 좌우명으로 삼아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7월1일 평통회장 취임사를 통해 “우리민족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전쟁당시보다 화력이 1천배나 좋아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 3천만명, 부상자가 3천만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을 통해 살상된 사람은 4천만명인데 반해 독재자에 의해 사망한 인구는 1억7천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전쟁보다도 독재자에 의한 죽은 사람 숫자가 4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일보다도 자유가 더욱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 회장은 “자유를 위해서는 통일을 유보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자유는 조금도 유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일을 침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

에 국정원 직원을 초청해 북한정세를 상세히 들었고 10월에는 이 회장이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위원들이 강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 회원간의 상호친목이 중요하다.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퍼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원친목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 부부의 상을 담았는데 찾아가지도 않는 위원들과 무슨 통일을 논하겠느냐며 상호친목을 강조한다.

포천신문 지부위원으로도 활동중인 이 회장은 “포천신문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고무적”이라며 “논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계몽하고 빠르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포천시 발전에 대해 “최근 행사가 너무 많은데 생산과 연결 안 되는 일회성 행사가 많은 것은 지양해야 하며 문화는 정신이지 행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행사의 경우 정신활동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위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천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력·도덕성 등 검증된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시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황 광 익

(주)리더케미칼 대표이사

‘인내를 갖고 정착하게’를 생활신조로 삼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서 (주)리더케미칼을 경영하고 있는 황광익(47·사진) 대표이사를 만났다.

‘정의의 뜻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생각으로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는 황 대표이사는 몇 년전 12억원의 부도를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여음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여음이 없다면 부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황 대표이사는 PVC보호필름과 타포린, 가구용 데코시트 필름, 모타보트시 필름 등을 생산하여 수출 50%, 내수 50%, 연간 매출액 70억원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으로 유가변동에 따라 어려움도 불확하지만 소비성이 강한 제품으로 내년도에는 150억 원의 매출신장을 목



여주고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포천로타리클럽 총무를 역임한 황 대표이사는 로타리클럽 봉사도 나서지만 포천신문이 연중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옥매트, 전기장판 등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골프회 회장으로 활동중인 황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 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물론 전문위

‘정의의 뜻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어음제도 폐지로 부도 방지해야 한다”

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바이어의 중간 마진을 없애기 위해 직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왔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황 대표이사의 회사경영방침은 무엇보다도 부의 배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회사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회사 상호를 리더로 정한 것도 직원들 모두가 리더가 되어 회사를 잘 이끌어 주고 또 이 회사가 전국을 리더 할 수 있고 세계를 리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했다고 한다.

황 대표이사는 포천신문과의 인연으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3년 부도를 맞았는데 포천신문이 부도를 다 해결 때까지 기다려 주어 너무 감사하며 운영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황 대표이사는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서 포천신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에 사는 모습을 보

원회, 주부명예기자단과의 골프교류 확대를 통해 포천신문 각 위원회간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황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 상호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이사는 “포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포천에 뿌려야 한다”는 생각을 송우리에 거주하면서 2남1녀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다. 포천사람으로서 포천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사항은 구석구석 다양한 뉴스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밀도 있게 그려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이 모든시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문으로서 정착하게 운영되고 검은겨레 없이 깨끗한 신문으로 알려지고 정착되는 것은 포천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도 더욱더 올바른 신문제작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업무실적 우수자 표창 수여식

박찬홍 경위 등 혁신업무유공 경찰관 12명 수상

포천경찰서(서장 김명배)는 지난 7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혁신체제 초출 보급에 기여한 생활안전과 박찬홍 경위 등 혁신업무유공 경찰관 12명에 대해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한 생활안전과 박찬홍 경위 등 7명 신호신체포출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내촌파출소 이은영 경장 등 2명은 중요범 검거로, 정보보안과 최봉규 경사 등 3명은 하반기 평가사적 및 외근성적 우수분 각각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특히, 내촌파출소 이은영 경장 등 2명은 지난 9. 29일 내촌초소에서 발생한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명배 서장은 훈시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것에 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안정되고 편안한 포천 만들기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